

〈無影塔〉의 구조 분석

-사랑과 죽음의 변증법-

宋美羅

目次

- | | |
|------------------|-----------------|
| I. 서론 | IV. 사랑과 죽음의 변증법 |
| II. 작품의 서술 구조 | V. 결론 |
| III. 작중 인물의 욕망구조 | |

I. 서론

玄頭健은 근대 단편소설과 사실주의 문학을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사상 최초로 기교의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근대문학을 전개시킨 선구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¹⁾ 그리고 그의 문학관과 소설 양식이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평도 함께 받고 있다.²⁾ 그러나 김현, 김윤식의 “韓國文學史”³⁾에서는 다른 견해를 보여 그가 시대인식이 투철한 작가라는 층래의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진건은 인간이 가정과 그것의 확대체인 사회에 얽매어 있으며 사회의 모순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의 진정한 문제는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1)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成文閣, 1982), pp.409 ~ 414.

白藏, 新文學思潮史, (新丘文化社, 1980), pp.261 ~ 269.

2) 尹弘老, 韓國近代小說研究, (一湖閣, 1984), p.125.

3) 김윤식, 김현, 韓國文學史, (民音社, 1984), pp.164 ~ 165.

현진건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그의 문학사적 위치에서 비롯된 것이 많아 식민지 당대 현실을 얼마나 예리하게 파악했으며 그것이 작품에 어떻게 구현되었는가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었다. 이처럼 그에 대한 연구는 작품의 외재적 평가에 치우쳐 이루어지고 있어서 내재적 평가에 의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와서는 그의 전 작품에 걸쳐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연구가 미흡했던 그의 후기 작품에도 접근의 손길이 뻗치고 있으며 그 성과도 자못 크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의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이 문학의 외재적 비평 방법이 선행되고 있다. 신동욱,⁴⁾ 한상무,⁵⁾ 최원식,⁶⁾ 정한숙⁷⁾ 등이 「無影塔」을 연구한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들의 글에서도 작품이 지니는 문학 외적 평가를 우선하고 있다.

작품에 시대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었는가 혹은 작품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작품 자체의 치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無影塔」의 구조 분석”은 이 작품에 대한 작품 내재적 분석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시도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글은 「無影塔」의 역사 소설, 신문소설로서의 기능을 따지기 이전에 우선은 소설 미학적 차원에서 작품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신문소설로서의 기능이나 가치, 역사소설로서의 기능이나 가치는 본고의 기술 목표에서 제외시킴을 밝혀둔다.

이 글은 「無影塔」을 작품 내재적 구조 분석 방식에 따라 소설의 미적 측면과 의미 생성 과정을 밝히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품의 서술 구

4) 申東旭, “無影塔論”, 玄奘健 研究, (새문사, 1981), pp.I-60 ~ I-72.

5) 韓相武, “玄奘健 後期小說의 構造와 民族·歷史意識”, (강원대학교 논문집 제 15집, 1981), pp.3 ~ 17.

6) 崔元植, “玄奘健 研究”, (서울대학교 현대문학연구 제 13집, 1974).

7) 鄭漢淑, “兩面意識의 虛弱性”, 韓國現代作家論,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1), pp.99 ~ 107.

조에서는 「無影塔」의 전개 과정을 플롯 분석⁸⁾ 과 함께 시간, 공간상의 변화⁹⁾ 를 통해 살펴보겠다. 다음에는 작품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중 인물들의 행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여기서는 욕망 구조¹⁰⁾ 를 통해 작중 인물들의 성격과 사건의 인과 관계를 살피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세 사람의 죽음이 이 작품을 종교적 이상 세계의 구현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게 했다고 보고 이를 사랑과 죽음의 변증법에 따라 살펴보겠다. 이런 세 단계를 통해 주만과 아사녀, 아사달의 사랑에 가해지는 시련과 죽음이 어떻게 전개되며 이것이 작품 전체의 의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다.

II. 작품의 서술 구조

「無影塔」은 신라 귀족의 딸인 주만과 부여의 석공인 아사달, 그리고 그의 아내 아사녀와의 삼각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아사달을 향한 주만과 아사녀의 진실한 사랑은 계속 시련을 겪게 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두 여인의 죽음은 아사달에 의해 願佛의 모습으로 승화되고 아사달 자신도 죽음을 택하게 한다. 이런 죽음에 의해 이 작품은 한낱 통속적인 사랑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보다 차원 높은 종교적 이상 세계의 구현을 도모하게 된다.

플롯은 다루고 있는 주요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운명의 플롯, 성격의 플롯, 사고의 플롯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¹¹⁾ 이 작

8) 노오먼 프라이드먼, 《최상규역》, “플롯의 諸形式”, 現代小說의 理論, (大邦出版社, 1986), pp.172 ~ 100.

9) 장리카르도, 《최상규역》, “敘述의 時間과 虛構의 時間”, 위의 책, pp.487 ~ 496.

10) 김치수, “지라르의 「욕망」의 이론”,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弘盛社, 1983), pp.177 ~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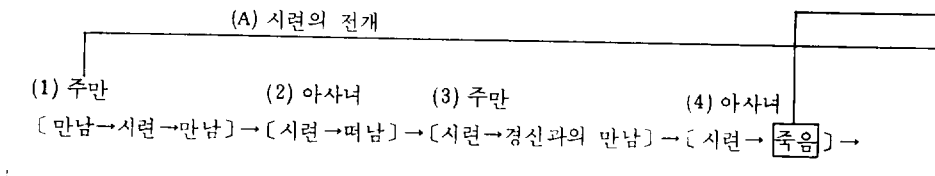
르네·지라르(김윤식역), 小說의 理論, (二英社, 1983).

11) 노오먼 프라이드먼(최상규역), 앞의 책, pp.172 ~ 199.

봄은 성격의 플롯 중에서도 시련의 플롯에 유사한 전개 과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시련의 플롯¹²⁾의 뚜렷한 특성은 공감적이고 힘이 있고 과단성이 있는 주인공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높은 목적과 수단을 양보하고 포기하도록 압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과연 꺾일 것인가 꺾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플롯의 중심이 된다. 이 작품에서도 주만과 아사녀, 아사달에게 시련이 가해지고 이들의 저항이나 갈등 또한 계속 나타난다는 점에서 시련의 플롯이라고 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도표-I>의 설명 과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은 주만이 불국사에 갔다가 아사달을 보고 흠모의 정이 생겨 계속 만나게 되었고 사랑을 고백하는 단계다. ①의 만남에서 주만은 연정이 발생했고 석가탑에 쓰러진 아사달을 발견해서 간호해줌으로써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 ②는 당학과 우두머리인 금시중의 아들 금성이 주만에게 연정을 품고 계속 넘보는 것이다. 결국 금시중이 청혼을 하지만 국선도파인 주만의 아버지 유종은 이를 거절한다. 이로써 당학과와 국선도파의 대립은 첨예화된다. 그래서 유종은 경신과의 청혼을 추진해서 후환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는 주만에게 또다른 시련이 된다. ③의 만남에서 주만은 아사달을 찾아가다가 사랑을 고백한다. 이에 아사달은 부인이 있다며 정혼된 데로 가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를 권한다. 그러나 주만은 제자로라도 좋으니 곁에 있겠다며 떠날 때에 데려가달라고 부탁한다.

(2)는 아사녀가 부여에서 여러 시련을 겪고 나서 아사달을 찾아 서라벌로 떠나는 단계다. ①아사녀가 부여에서 겪게 되는 시련은 그때까지 의지해오
<도표-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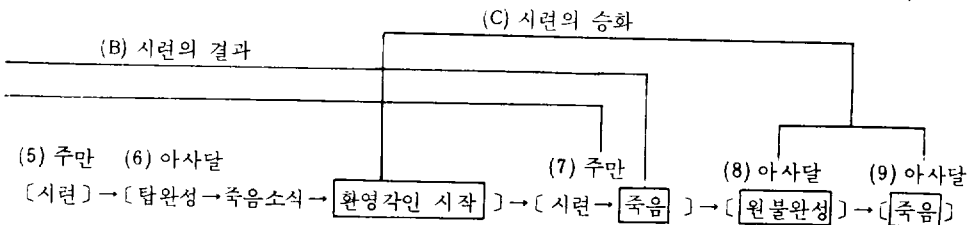


12) 노오먼 프리드먼(최상규역), 위의 책, pp.177~187.

던 아버지 부석의 죽음에서 비롯된다. 혼자가 된 아사녀에게 장달과 옷보, 작지가 흑심을 품고 넘보는 소행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싹불과 쟁개는 아사녀에게 아사달이 서라벌에서 귀인집에 장가들어 아이까지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아사녀는 이로 인해 밥시 앓으며 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 ②아사녀는 나중에 이것이 싹불과 쟁개의 간계임을 알아차리고 아사달을 찾아 서라벌로 떠난다.

(3)은 주만이 불국사 사단을 듣고는 일이 다급해짐을 알고 경신에게 파혼을 요청하는 단세다. ①주만이 불국사로 자주 간다는 것을 알고 금성은 장안의 건달들과 함께 불국사로 쳐들어간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아사달은 혼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신과 불국사 중인 용돌에 의해 단단히 창피만 당하고 돌아온다. 그러나 불국사 사단은 엉뚱하게 소문이 나서 주만을 불안하게 한다. ②주만은 집에 찾아와서 인사하는 경신을 따로 만나 아사달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파혼해줄 것을 요청한다. 경신은 이를 이해한다며 파혼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므로 그냥 있겠다며 협조의 태도를 보인다.

(4)는 아사녀가 서라벌까지 왔으나 아사달을 만날 수 없어 자기의 시신 위에나마 탐의 모습이 비치기를 바라며 그림자못에 빠져 죽는 단계다. ①서라벌까지 온 아사녀는 불국사 문지기로부터 박대를 받고 거짓으로 말한 그림자못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사녀는 그림자못 옆의 콩콩이의 집에 있다가 그의 간계를 알고 뛰쳐나와 불국사로 다시 간다. 거기서 우연히 주만을 모시고 가는 탈이에 의해 그들이 아사달을 찾아가는 중이라는 걸 알고는 또다시 절망하게 된다. ②아사녀는 아사달에게 자신은 방해만 되는 존재라고 생각



하며 그림자뚫에 몸을 던진다.

(5)는 조회에서 금시중이 유종을 비난하는 데에 불국사 사단을 이용해서 주만의 부모가 일의 진모를 알게 되는 단계다. 어머니 사초부인은 주만으로부터 모든 걸 듣고나서 설득했으나 주만의 마음은 변함 없다.

(6)은 아사달이 탑을 완성하고나서 아사녀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못가의 돌에 아사녀의 모습을 새기기 시작하는 단계다. ①아사달은 삼년이란 세월이 걸려 이룩된 탑을 보며 여러가지 감회에 사로잡힌다. 그때 풍뎡이가 아사녀의 죽음 소식을 전하자 아사달은 그림자뚫으로 달려간다. ②아사달은 못주위를 배회하다 아사녀의 환영을 보고 못가에 있는 돌에 그 모습을 새기기 시작한다.

(7)은 주만이 떠날 결심을 하고 아사달을 찾아 영지까지 갔으나 붙잡혀 국법에 의해 불에 태워지는 단계다. ①주만은 아사달을 따라 부여로 갈 결심을 하고 영지까지 찾아가는다. 그러나 환영을 새기느라 정신이 없는 아사달은 주만의 다급한 사정도 모른다. 결국 주만은 붙잡히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아사달에게 자신의 모습이나마 새겨달라고 한다. ②주만은 국법에 의해 불에 태워지고 경신이 구출해내지만 소생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8)에서 아사달은 아사녀의 환영을 새기다가 주만의 존재를 깨닫고 중단한다. 아사달은 두 여인의 환영 사이에서 갈등을 겪다가 마침내 하나로 녹아든 부처의 모습인 願佛을 새기게 된다.

(9)에서 아사달은 자기가 새긴 願佛에서 두 여인의 승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도 붓 속으로 뛰어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는 주만과 아사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들로 전개되고 있다. 주만과 아사녀는 불국사 안에서만 생활하며 탑 쌓는 일에 몰두하는 아사달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상호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사달을 향한 일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사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련도 그 사랑의 형태가 일방적이기 때문에 더욱 힘든 것이 된다. 주만이나 아사녀가 사랑을 추구하며 겪게 되는 시련의 극복도 어려운 문제지만, 이런 시련에 약해지거나 꺾이지 않으려는 자신과의 싸움이 더욱 힘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A)는

사랑을 추구하려는 데서 겪게 되는 시련의 전개 과정이면서 동시에 숨겨진 인간적인 진실에 가까와지려는 자신과의 싸움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아사달이 탐을 쌓는 과정에서 취하는 태도와도 일맥 상통한다.

주만과 아사달에게 가해지는 시련은 계속되다가 (B)에 이르러서는 두 여인을 죽게 한다. 이들의 사랑에 가해지던 시련이 계속되는 동안 두 여인은 이의 극복과 함께 진실의 추구라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더욱 치열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련의 가장 끝에 죽음이 자리한다면 이는 곧 가장 진실해진 자신들의 모습의 변형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사달은 주만과 아사녀가 자신에 대한 사랑때문에 시련을 겪는 동안 탐 쌓는 일에만 몰두했었다. 그러다가 이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다. 진실한 사랑은 곧 진실한 삶과 통하고 이는 부처의 세계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아사달은 두 여인의 죽음에서 부처의 모습을 보고 영지에 顯佛을 새긴다. 거기에 자신의 모습까지 투영시키고 아사녀가 빠진 影池에 자신도 몸을 던져 죽는다. 이는 아사달에 의해 두 여인의 죽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까지도 승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품은 사건에 따라 중심 인물이 달라진다. 하나의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을 모두 파악해야만이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 사랑과 시련의 전개 과정에서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의 내면 심리와 두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까지 다루고 있다. 그리고 두 죽음을 통해 그들의 사랑을 수용하며 겪는 아사달의 갈등 과정과 죽음도 자세히 묘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작가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나 공간의 이동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이 작품의 사건은 순차적으로 전개된다. 때에 따라 과거를 회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아사달이 석가탐을 쌓다가 부여에 있는 아사녀를 생각할 때 나타난 정도에 불과하다. 서술해가는 과정에서 중심 인물이 변함에 따라 약간의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이것도 각각의 중심 인물 측에서 본다면 순차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즉 이 작품에서 시간은 각 중심 인물을 주축으로 평행선을 유지하다가 죽음을 통해 하나의 시간선상으로 모아져서 영원한 세계로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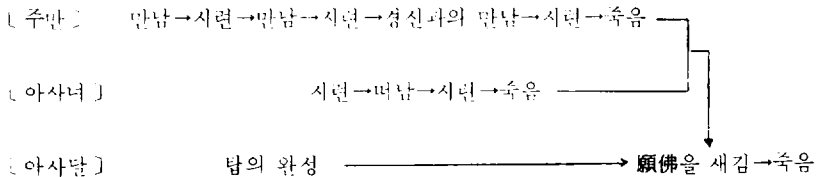
시간은 하나의 사건을 서술해나가다 이를 중단시키고 다른 사건을 서술해가는 것으로 동시성이 깨어지고 교호성이 대신 작용하고 있다.¹³⁾ 이것이 각 부분의 흥미를 증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작품의 공간은 사랑과 시련의 전개 과정에서는 서라벌의 불국사가 그 중심이 되고 있다. 주만이나 아사녀가 중심 인물이 되어 전개될 때는 주만네 집이나 부여에서 사랑의 대상이 있는 불국사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죽음이 전개되면서 공간은 불국사에서 그림자못으로 이동한다. 이는 無影塔에서 影池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여인의 죽음을 통한 사라짐에서 부처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還生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플롯이나 시점 혹은 시간·공간적 이동 상황 모두가 시련의 전개·결과·승화라는 전개 과정과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갖는 서술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작품의 전개는 주만과 아사녀의 아사달을 향한 사랑 이야기가 계속되다가 두 여인의 죽음을 계기로 중심 인물은 북북하게 탐을 짓던 아사달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자기만의 길을 걸던 세 중심 인물은 결말 부분에 이르러서야 한데 어우러져, 두 여인의 죽음은 願佛로 승화되고 아사달 자신도 죽음을 택하게 된다. 이를 작중 인물들의 행위 기능만을 강조하여 간단히 도식화하면 <도표-Ⅱ>와 같이 된다.

<도표-Ⅱ>



13) 장리카르도(최상익역), 앞의 책, pp.494~495.

이처럼 작품의 서술 구조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작중 인물들의 행위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작품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시련의 연속이라는 측면에서 인물들의 행위 기능을 통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작품의 구조 해명에 미비한 점이 많게 된다. 따라서 사건간의 인과 관계 및 작품 전체와의 연계를 위해 다음에는 작중 인물들의 갈등 양상을 욕망 구조를 통해 살펴보겠다.

Ⅲ. 작중 인물의 욕망 구조

『無影塔』은 아사달에 대한 주만과 아사녀의 사랑에 가해지는 시련이 교차되다가 결국은 두 여인이 죽고, 아사달도 두 여인의 모습을 顯佛로 새기고 죽는 사랑 이야기를 그 구조로 갖고 있다. 작품 전반에 걸쳐 주만, 아사녀, 아사달의 사랑이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지만, 주만을 둘러싼 금성이나 경신과의 관계, 아사녀를 둘러싼 여러 제자들의 암투도 모두 사랑을 성취하려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의 흐름이 사랑을 추구하는 데 있는 만큼 인물들간의 대립이나 경쟁 혹은 협조가 많이 나타난다.

이들 르네·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¹⁴⁾을 원용해서 살펴보았다. 르네·지라르는 돈키호테의 경우를 예로 들어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돈키호테는 이상적인 방랑의 기사가 되기 위해서 아마디스라는 전설의 기사를 모방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돈키호테가 직접 이상적인 기사도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디스를 모방함으로써 거기에 도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기사도에 도달하고자 하는 돈키호테의 욕망은 아마디스라는 중개자에 의해 간접화되고 있고, 주체와 대상 사이에는 간접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은 주체의 욕망이 수직적인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상승하여 중개자를 거친다는 것이다.

욕망은 주체, 대상, 중개자의 삼각관계를 기본틀로 하여 구성되고 이때 주

14) 김치수, 앞의 책, pp.177 ~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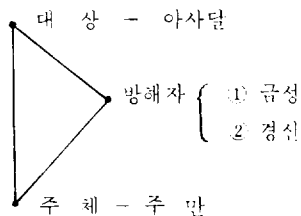
르네·지라르, 앞의 책.

체와 중개자 사이에는 선망, 경쟁, 증오가 뒤섞인 뜨겁고도 미묘한 관계가 이루어진다. 주체가 중개자에 대해 선망을 갖고 있으면 이는 중개자를 모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주체와 중개자 사이의 거리가 동일선상에서 목표가 되는 대상을 추구할 때는 경쟁 관계에 서게 된다. 이런 변화는 주체와 중개자 사이에서 더욱 복잡한 관계를 만든다. 이렇게 볼 때 주체가 욕망을 추구하는 데 중개자가 방해하는 역할도 있을 수 있다. 이때 대상을 향한 주체의 욕망은 중개자에 의해 방해받지만 이것이 더욱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상을 추구하게 할 수 있다. 수만과 아사달이 주체가 되는 욕망도식도 중개자가 방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수만의 경우

수만은 불국사에 갔다가 탑을 쌓는 아사달을 처음 보고 흠모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수만의 아사달에 대한 사랑은 만남을 거듭함에 따라 걸잡을 수 없이 깊어간다. 하지만 수만에게는 금성의 청혼과 성신과의 성혼이라는 시련이 차례로 닥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은 국법에 의하면 화형에 처해지는 죄에 해당된다. 결국 수만은 국법에 따라 화형에 처해지지만 그의 사랑은 아사달에게 받아들여져서 飄佛의 모습으로 승화된다. 이를 수만이 주체가 된 욕망도식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도표-III>



① 금성은 당학파인 금시중의 아들로 당나라 유학을 하고 한림학사까지 지냈지만 그 성품이나 위모가 보잘 것 없는 인물이다. 금성은 수만을 취하기 위해 아버지인 금시중으로 하여금 수만의 아버지 유종에게 직접 청혼하

게 한다. 하지만 이는 그 배후에 당학과와 국선도파라는 근본적인 대립과 갈등 요인을 안고 있어서 성사될 수 없었다. 유종은 이를 거절하고나서 국선도파인 경신과의 정혼을 추진하게 된다.

방해자로서 첫번째 역할을 하는 금성의 정혼은 그 이전에 당학과와 국선도파라는 근본적인 갈등 요인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그 정혼이 거절되자 내림은 첨예화되며 방해작용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유종으로 하여금 수만과 경신과의 정혼을 추진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수만은 이런 방해작용에 주저앉지 않고 아사달을 향한 마음을 더욱 확고히 한다.

2) 경신은 자신의 현실적 한계를 절감하고 있던 유종이 사뭇감으로 굶주린 영웅상에 투영하는 인물이다. 수만은 부모님의 뜻에 의해 경신과 정혼이 됐지만 끝까지 이를 따르지 않는다. 물론 수만은 경신이 금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과 경신이 자기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수만은 경신을 만나 아사달과의 관계를 말하고 파혼해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경신은 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파혼을 했을 때 발생할 문제를 염려해서 그대로 있겠다는 적당 극인 협조의 태도까지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경신이 하는 두번째 중개의 역할은 금성의 경우와는 달리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다. 즉 경신과 이루어지는 정혼 자체는 아사달을 향한 사랑에 방해 요인이 되지만 경신 자신은 수만의 사랑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금성의 방해는 쉽게 극복할 수 있음에 비해 경신의 경우는 수만으로 하여금 충분히 갈등을 느끼게 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수만은 이러한 두번째의 방해작용에도 갈등을 느끼거나 약해지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지켜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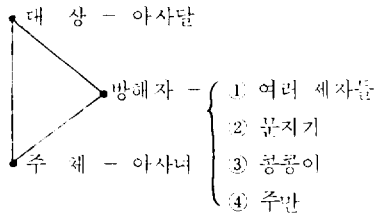
이처럼 수만의 사랑은 금성의 정혼과 끈질긴 방해 그리고 경신과의 정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지속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만과 아사달의 사랑은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수만은 아사달에게 자신의 모습을 새겨달라는 부탁을 하고 붙잡혀가서 화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사달을 향한 수만의 마음은 계속되어 현실에서 용납될 수

없었던 이 사랑은 죽음을 지나서야 비로소 願佛의 모습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2) 아사녀의 경우

아사녀는 아사남의 아내로 부여에서 아사남이 대공을 완성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아버지 부석이 죽자 아사녀에게는 여러 제자들의 유혹이 끊이질 않는다. 결국 아사남을 찾아 불국사까지 갔으나 문지기의 막대와 콩콩이의 간계가 아사남을 만날 수 없게 한다. 아사녀는 아사남에게 주만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까지 알고는 影池에 몸을 던지게 된다. 이처럼 아사녀의 아사남을 향한 사랑은 끊임없는 시련과 음모가 따라 결국 아사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하지만 이 죽음은 아사남에 의해 願佛의 모습으로 승화된다. 이를 아사녀가 주체가 된 욕망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표 - N〉



① 아사녀는 아버지 부석이 죽고 혼자가 되자 여러 제자들의 유혹을 받게 된다. 처음에는 장담과 웃보가 아사녀 앞에서 심하게 다투는데 이것이 과장되어 소문이 난다. 이 소문은 아사녀가 부여에서 혼자 지내는 것을 어렵게 하기 시작한다. 다음은 밤중에 침입하여 아사녀를 닮보려던 작지의 소행이다. 싹불과 쟁개가 나타나 이 분쟁을 모멸하게 해준다. 하지만 싹불과 쟁개는 아사녀에게 거짓으로 아사남의 소식을 전한다. 그것은 아사남이 서라벌에서 귀인집에 상가늘어 아이까지 있다는 것으로 아사녀는 이로 인해 심하게 앓으며 남편에 대한 믿음과 다른 한편에서 생기는 갈등으로 괴로와 한다. 결국은 이것이 싹불과 쟁개의 죽음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처럼 첫번째 방

해자들의 갖은 유혹과 간계는 아사녀가 아사달을 찾아 서라벌로 떠나는 적극적 행동을 하게 한다.

② 아사녀는 갖은 고생을 하면서도 남편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서라벌까지 온다. 그러나 불국사 문지기는 아사달을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탐의 완성여부를 알려고 매일 와도 괜찮겠냐는 아사녀에게 문지기는 거짓으로 그림자뭇 얘기를 해 버린다. 그래서 아사녀는 그림자뭇으로 가서 뭇에 탐의 그림자가 비치기를 기다리게 된다. 이는 나중에 아사녀가 자신의 시신 위에나마 탐의 그림자가 비치기를 바라며 빠져 죽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문지기의 막대는 아사녀에게 아사달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역할만을 한다.

③ 아사녀는 그림자 뭇에 있다가 풍꽁이에 의해 여러가지 대접을 받는다. 아사녀는 풍꽁이가 서라벌의 고급 뽕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고마와하며 계속 거기서 기거한다. 아사녀는 어느날 손님과의 대화를 엿듣고 풍꽁이가 자기를 그 손님의 첩으로 넘기려 한다는 것을 알게되어 그 자리를 피해 불국사로 정신없이 뛰어간다. 세번째 방해의 역할을 하는 풍꽁이의 간계는 아사녀로 하여금 절망적인 위기를 느끼게 하여 아사달을 찾아가게 한다.

④ 하지만 아사녀는 다음 단계에서 더욱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다. 주만과 털이가 불국사로 가며 아사달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된다. 아사녀는 자기가 없어진다면 아사달은 주만과 같은 사람을 만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나선 풍꽁이를 따라가다가 그림자뭇에 몸을 던지게 된다. 아사녀는 온갖 어려움을 겪어가며 이제 막 아사달을 만날 수 있는 단계인데도 아사달의 행복을 위해 죽음을 택했던 것이다. 이 네번째 방해의 역할을 하는 주만은 자신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사녀로 하여금 죽음을 택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때 아사녀가 풍꽁이를 따라가면 누릴 수 있을 모든 영화도 무시하고 죽음을 택했던 것은 아사달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진실했으며 그 사랑이 자신의 안일을 돌보지 않는 헌신적인 것이라는 걸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아사녀의 아사달을 향한 사랑의 욕망은 계속되는 방해를 받으면서도 변함없이 진실하다. 결국 아사달을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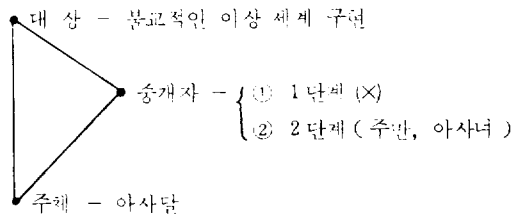
아사녀의 모습은 죽은 후에 願佛의 모습으로 승화되어 영원히 아사달과 함께 하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욕망도식을 이용해서 주만의 경우와 아사녀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주만과 아사녀의 아사달을 향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이 작품의 전편을 흐르고 있는 것은 주만과 아사녀의 아사달을 향한 사랑의 욕망과 이들의 직접, 간접 작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이다. 그것은 특히 주만이 아사달을 향해 추구하는 사랑의 성취와 아사녀가 아사달을 향해 추구하는 사랑의 성취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주만을 사랑하려는 여러 인물들에 의한 방해와 아사녀를 취하려는 여러 인물들의 방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주만과 아사녀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사랑의 욕망도식만으로 이 작품의 구조를 사랑 이야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주만과 아사녀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사달의 욕망도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아사달의 경우

아사달은 주만과 아사녀의 죽음을 보고 비로소 이들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래서 두 여인의 모습이 한데 어우러진 願佛을 새기고 자신도 따라 죽는다. 즉 아사달은 작품 전편을 흐르면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끝부분에 가서야 두 여인의 죽음을 보고 그들의 사랑을 수용함으로써 그의 욕망은 다룬 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즉 아사달의 욕망은 사랑의 성취가 아니라 탐의 완성을 통해 구현되는 불교적인 이상 세계에의 도달에 있었던 것이다. 이를 아사달이 주제가 된 욕망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표-V>



① 아사달은 삼년동안 불국사 안에서만 지내며 다보탑과 석가탑을 쌓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것으로 아사녀 생각이나 향수를 달랬다. 뿐만 아니라 그의 탑을 쌓는 태도는 神興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서 종교적인 구원의 힘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그에게 처음부터 탑의 완성을 통해 구현될 불교적 이상 세계에의 도달이라는 욕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아사달이 불국사에서 다보탑과 석가탑을 완성하기까지는 그 어떤 중개적인 역할이 없이 수직적으로 목표가 되는 대상을 추구하고 있다.

② 탑을 완성한 아사달은 아사녀와 주만의 죽음을 차례로 맞게 된다. 아사달은 아사녀의 환영을 새기다가 주만에 의해 계속되던 神興이 깨어진다. 아사달은 두 여인의 환영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느끼지만 결국은 두 여인의 모습이 융합되어 하나가 된 부처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모습을 願佛로 새기고 나서 아사달도 따라 죽는다.

이를 통해 보면 아사달이 갖고 있던 욕망은 불교적 이상 세계의 도달에 있었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 탑을 쌓은 것이다. 그래서 첫번째 단계인 석가탑을 완성할 때까지는 중개자의 역할없이 주체와 대상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願佛을 새기고 죽는 두번째 단계에서는 주만과 아사녀의 죽음을 통해 부처의 모습을 보았고 이를 새겼으므로 주만과 아사녀는 아사달이 욕망을 추구하는데 중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사달이 주체가 되어 성립하는 욕망도식도 물론 성립하지만 이는 주만과 아사녀의 경우처럼 사랑의 욕망도식이 아니다. 따라서 이 작품이 표면에 사랑 이야기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이 작품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한숙은 「兩面意識의 虛弱性」¹⁵⁾이라는 글에서 「無影塔」의 양면성을 하나는 예술적인 감흥과 통하는 인간의 고결한 사랑을, 또 하나는 작가의 사회의식 내지 역사의식을 들며 「無影塔」은 이 두 가지를 나타내려 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전자의 의도가 작품에서 비교적 성공을 거둔 반면 후자는 그 투철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두 가지를 양면성이라고 파악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전자의 경우는 공

15) 정한숙, 앞의 책, pp.99 ~ 107.

감하는 바 많지만, 후자의 경우 당학과와 국선도파의 대립을 통해 사회의식 내지 역사의식을 나타내려 했다는 데는 논리의 비약이 보인다. 당학과와 국선도파의 대립은 수만의 집안과 금성의 집안에서 첨예하게 대립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런 대립이 작품 전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無影塔」은 두 개의 구조가 병존하며 양면성을 띠는 작품이 아니라 사랑의 전개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시련과 죽음, 그리고 사랑과 죽음의 변증법에 의해 가능해진 불교적 이상 세계에의 도달이라는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Ⅳ. 사랑과 죽음의 변증법

앞에서 「無影塔」의 중심 인물들이 갖고 있는 욕망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런 과정에서 사랑 이야기로서의 구조가 죽음 행위를 통한 불교적 이상 세계의 구현이라는 구조로 변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는 사랑과 죽음의 변증법에 의해 나타난 불교적 이상 세계의 구현을 살펴보겠다. 우선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 죽음의 의미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920년대부터는 우리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죽음에 대한 사고와 감성이 유례없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thanatos*의 충동은 「白糊」의 문학에서 비롯하여 20년대의 소설에서 거의 지배적인 현상을 이루는 것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현재 또는 현실의 강한 절망의식 때문이며 경제적인 빈궁과 사회주의의 수용 그리고 서구문학의 비교문학적인 영향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죽음에의 경도 현상은 30년대 문학에도 계속된다.¹⁶⁾

李在統¹⁷⁾ 씨는 이런 죽음의 현상을 현진건의 경우에는 ‘경법한 죽음’과 ‘비법한 죽음’이라는 두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현진건은 그의 문학세계에서 죽음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범속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며

16) 李在統, 韓國現代小說史(弘盛社, 1984), pp.248 ~ 250.

17) 李在統, 위의 책, pp.260 ~ 264.

또 심미적으로 미화되는 자살보다는 가난, 질병과 같은 재난에 의한 죽음, 반발과 개체 방위의 정신교란에 의한 살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죽음의 원인은 대개 사회적인 억압으로 환원된다며 이런 평범한 죽음으로 「할머니의 죽음」, 「私立精神病院長」, 「운수 좋은 날」, 「발」의 경우가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장편 「赤道」에서는 이전 작품들의 수동적인 인물들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을 立像化하고 있다. 에로스적인 애정의 갈등과 이의 아가페적인 초극의 드라마를 반영하고 있는 이 작품에는 죽음을 고려하지 않는 그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 뛰어드는 金如海의 자기희생의 비범한 죽음이 그려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죽음 자체는 당대 식민지 통치하에서 마주치게 되는 영합이나 이에 대한 저항이냐란 선택의 택일 문제를 암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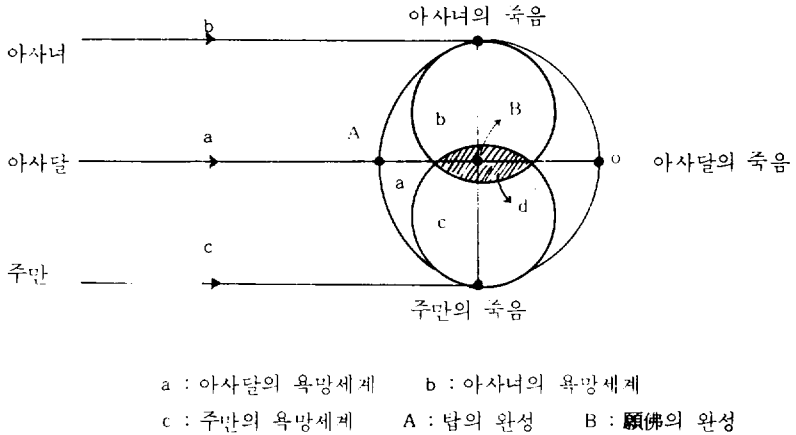
李仁福¹⁸⁾ 씨도 인간의 모든 것을 바르게 묘사하려고 하는 작가들은 죽음을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고 문학작품에서 죽음을 다룬다고 보며 작품에서 나타난 죽음을 고찰하고 있다.

죽음이 주제를 표현하는 최후단계까지 남아서 작품내에서의 그 죽음의 현상이 주제를 나타내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 인자가 된다면 이를 ‘주제적 죽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작품내의 죽음이 그 작품의 주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이를 ‘소재적 죽음’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런 분류는 편의상 한 것이며 문제는 어떤 죽음이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하여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다.

李在純과 李仁福이 나눈 죽음의 의미 유형에 의한다면 「無影塔」에 나타난 세 사람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라기보다는 비범한 죽음이며, 소재적 죽음이라기보다는 주제적 죽음이다. 이런 죽음의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無影塔」이 사랑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불교적 이상 세계의 구현이라는 보다 차원높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우선은 〈도표-VI〉을 통해 결말에 나타나는 세 죽음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구조가 어떤 것인지 밝혀보도록 하겠다.

18) 李仁福, 韓國文學에 나타난 죽음意識의 史的 研究(悅話堂, 1981), pp.17 ~ 18.

〈도표-VI〉



〈도표-VI〉에서 세 인물의 작중 행위는 아사녀와 주만의 죽음 전까지는 사랑의 욕망이 아사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죽음을 통해서 두 여인의 욕망이 아사달에게 전격적으로 수용되며 합치점을 찾기 시작한다. 죽음을 통해서 두 여인은 사랑의 진실의 위대한 힘을 보여 주었고 아사달은 그들의 숭고한 죽음 행위를 통해서 마치 부처의 모습 같은 殺身成仁의 높은 경지를 발견한다. 그가 두 여인의 얼굴을 새긴 것이 결국 하나의 願佛의 모습으로 조형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 속에서 바로 부처의 참모습 같은 성스러운 진실과 가치를 찾아냈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하면, 두 여인은 일상적 죽음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 사랑의 화신으로서 다시 태어나 영원한 보살의 모습으로 새겨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여인의 죽음이 종교적 차원으로 승화된 것은 이 소설의 주제적 차원을 설명해주는 단서가 된다.

여기서 아사달의 죽음 또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두 여인의 죽음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들이 보여준 사랑의 진실을 이해하고 수용했다는 뜻도 되지만 그것은 단순한 수용이 아님이 명백해진다. 아내가 몸을 던진 바로 그 影池에 투신자살함으로써 아내와도 하나가 될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두 여인의 모습을 돌에 새겼다는 의미에서 그는 또한 두 여인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 소설이 주는 죽음의 의미와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아진다.

b는 아사달을 향한 아사녀의 욕망 추구의 과정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탐공사하는 아사달에게 사랑의 진실이 전달되지 못했다. 이 사랑은 아사녀가 죽은 후에야 아사달에게 수용된다.

c는 주만이 아사달을 향한 욕망 추구의 과정이다. 이 경우에도 주만의 진실한 사랑은 아사달에게 전달되지 못한다. 주만이 국법을 분란케 한 죄로 화형장으로 끌려간 후에야 아사달에게 수용된다.

아사달은 a라는 욕망 세계만을 추구해서 A의 지점에 이르러 석가탑을 완성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a에 겨우 집착하게 된 것에 불과했다. 아사달은 아사녀의 죽음과 주만의 죽음이 빚어내는 d라는 세계에서 심한 혼란을 느끼게 된다. 결국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에서 부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는 다시 제 願佛의 모양으로 변한다. 아사달은 혼란에서 벗어나 B의 願佛을 완성한다.

아사달은 A에서 탐을 완성했지만 이는 無影塔에 불과했고 진정한 탐의 모습은 그림자못에서 발견된다. 아사달 자신이 쌓아올린 탐은 진정한 탐이 아니었다. 그가 발견한 진정한 탐의 모습이란 그림자못에 아내가 살신성인의 진실로 쌓아올린 願佛이었음을 자각한다. 결국 아내와 주만의 환영을 돌에 새겨 願佛로 승화시켜 놓고나서 그도 빠져 죽음으로써 그의 죽음은 변증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의 죽음은 두 여인의 모진 시련과 극단적인 죽음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수렴된 값진 행위로 볼 수 있다. 사랑을 위해 일상을 초극한 두 여인의 죽음, 그 죽음의 헌신적인 의미로부터 피어나는 願佛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모습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처럼 아사녀와 주만, 아사달의 죽음은 모두 일상을 초극한 죽음으로 이해된다. 두 여인은 아사달이 도달하고자 했던 이상 세계에 불교적 죽음¹⁹⁾을 통해서 함께 다다르게 된 것이다. 아사달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세 사람의 죽음은 불교적 이상 세계를 구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연적인 주제적 죽

19) 李仁福, 앞의 책, pp.77 ~ 79.

음으로 自然死나 외부적 억압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비범한 죽음인 것이다.

「無影塔」은 세 사람의 죽음을 통해 쌓아올린 순수하고 지고한 사랑의 탑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랑과 죽음의 이야기야말로 곧 불교적 이상 세계와도 통하는 길임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V. 결 론

이상에서 「無影塔」의 구조를 분석해서 작품이 나타내고자 한 의미를 살펴 보았다. 작품의 서술 구조는 플롯의 분석을 통해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 했으며, 작중 인물들의 욕망 구조는 르네·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원용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랑과 죽음의 변증법적인 해석에 의해 불교적 이상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작품이 갖는 의미라고 보았다.

작품의 서술 구조에서는 플롯 분석을 해 보았는데 주만과 아사녀의 아사달을 향한 사랑과 시련이 전개되다가 결국 죽게 되고 이는 다시 아사달에 의해 승화된다. 따라서 시련의 전개→시련의 결과→시련의 승화의 순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련은 주로 불국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그 시련이 顯佛의 모습으로 승화되는 것은 影池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만 했으며 서술의 시간과 허구의 시간 사이에 동시성과 교호성이 작용한다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였다.

작중 인물의 욕망 구조에서는 르네·지라르의 욕망도식을 원용했다. 주만과 아사녀의 아사달을 향한 욕망도식은 사랑의 추구이다. 이때 중개자의 위치에 내신 방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주만과 아사녀에게 시련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사달의 욕망도식은 사랑의 추구가 아니고 탑의 완성을 통한 불교적 이상 세계의 도달이었다.

이어서 세 사람의 죽음의 의미를 살펴본 결과 이 작품이 의도했던 것은 불교적 이상 세계에의 도달이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 즉 이 작품은 전반부에 사랑과 시련이 전개되다가 시련이 극대화된 상태인 죽음에 이르면서

사랑과 죽음의 변증법적 해석에 의해 작품의 의미가 뚜렷해진 것이다.

이 작품은 사건 전개가 너무 느리고 사건간의 연관성도 미약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장황하게 기술된 사랑과 시련의 전개과정에서 중심 인물들이 겪어야 할 내면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리고 세 사람의 죽음의 의미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이끌어낼 아사달이 겪는 갈등이나 위기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을 느슨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불교적 이상 세계의 도달이라는 결말을 향해 모든 사건과 인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본고는 작품을 이루는 모든 요소에 걸쳐 치밀한 분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無影塔」에 대한 작품 내재적 분석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첫 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작품의 보다 치밀한 구조 분석과 함께 신문소설이나 역사소설로서의 기능이나 가치 연구도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參 考 文 獻

- 金炳旭編(최상규역), 現代小說의 理論, 大邦出版社, 1986.
- 金治洙편저,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弘盛社, 1983.
- 김윤식/김현, 韓國文學史, 民音社, 1984.
- 白藏, 新文學思潮史, 新丘文化社, 1980.
- 申東旭, 玄奘健研究, 새문사, 1981.
- 尹弘老, 韓國近代小說研究, 一湖閣, 1984.
- 李仁福, 韓國文學에 나타난 죽음意識의 史的 研究, 悅話堂, 1981.
- 李在洵, 韓國現代小說史, 弘盛社, 1984.
- 趙演欽, 韓國現代文學史, 成文閣, 1982.
- 鄭漢淑, 韓國現代作家論, 高麗大學校出版部, 1981.
- 崔元植, 玄奘健研究, 서울대학교 현대문학연구 제 13 집, 1974.
- 韓國文學全集 4, 三省堂, 1984.
- 韓相武, 玄奘健 後期小說의 構造와 民族・歷史意識, 강원대학교 논문집, 제 15 집, 1981.
- 르네·지라르, (김윤식역), 小說의 理論, 二英社, 1983.